

인지과학과의 만남 관련 이정모의 개인적 회고

아래 글은 2008년 11월에 이정모가 작성한 글을,
2014년 2월에 이정모가 일부 보완 수정, 편집한 글입니다.

2008년도 중앙SUNDAY 3쪽의 이종찬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총 100명을 보낸 대원외고의 경쟁력은:
'대학 요구에 맞춘 시스템과 원서 100권 읽는 학생'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389425)

이라는 기사의 첫 이야기에서
해외 대학을 지망한 대원외고의 학생이
[인지과학] 분야의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는 기사 내용을 보고,

예전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심리학, 철학, 생리학 (PPP) 협동과정'을 혼자 알아서
2000년대 초에 이미 지원하였던 어떤 [민족사관고교] 3학년생,

그리고 2006년에 한국 내의 인지과학 관련 학회 모임에 적극 참석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던 미국 인지과학회, 국제인지과학회에 참석하기까지 하였고,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 한 대학의 [인지과학과]로 갔던 한 한국 고3 남학생 등이 생각나면서

그동안의 [인지과학]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아 알고 자신의 진로를 정하여
나갔던 (과거), 그리고 나가고 있고 (현재), 또 나갈 (미래)
한국의 여러 뛰어난, 생각이 깨인, 앞서 가는 고교생들 (+ 그리고 그 부모들),
그리고 그 후배들을 위하여
무언가 한국의 [인지과학] 이야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의 과일, 자료들을 찾아보고 우선 글을 올립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우선 올려놓고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인지과학]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은

- [심리학-인지과학 마을],(<http://blog.naver.com/metapsy>)
- [인지과학 마당],(<http://korcogsci.blogspot.kr/>);
- [이정모의 홈페이지], (<http://cogpsy.skku.ac.kr/>) [학술자료실] -> [인지과학개론]

의 여러 학술자료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인지과학] 관련 자료를(해외 자료는 영문으로)
찾아보시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
인지과학과의 만남 관련 이정모의 개인적 회고

1. 인지과학과의 첫 만남

인지과학이란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캐나다로 유학갔던 저는 1974년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명한 실험심리학자, 인지심리학자였던 스탠포드 대학의 Gordon Bower 교수가 자기 제자 John Anderson과 같이 1973년에 출간한 책,

Anderson, J. R. & Bower, G. H. (1973).
[Human Associative Memory]. (출판사: Winston & Sons)
<http://www.garfield.library.upenn.edu/classics1979/A1979HX09600001.pdf>

저는 이 책을 보고서 크게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 책은 전통적 심리학책들처럼 이론 전개와 실험 보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 논리학, 컴퓨터과학에서 사용하던 형식적 언어(formal language)에 의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온통 뒤엎인 책이었습니다.

인지과학의 핵심 영역의 하나인 기억 구조와 과정을 이러한 형식언어(쉽게 이야기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로 기술하고 관련 실험결과를 후에 기술하는 방식 중심이었습니다.

인지심리학의 떠오름으로, 심리학이 이전의 심리학과는 다른 심리학이 되었음을 널리 알리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제가 유학중이던 대학에서 노벨경제학상(1978년)을 수상한 Herber A. Simon 교수의 제자이며 당시에 이정모가 유학중인 대학교의 조교수로 있던 von Königslöwe 교수에게서, 심리학, 인공지능, 과학, 모델링, 이론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습니다. 인지주의에 대한 과학철학적 기초를 배운 것입니다

심리학의 세부 주제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떠나서 과학이란 무엇인가, 학문이란 무엇인가, 학문들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변화되었는가,

학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저는

지도교수가 가르치고 있던 ‘심리학사 및 이론체계’ [Hisrory and Systems of Psychology]
라는 [학부] 강의를 청강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9월에서 이듬 해 4월 초까지 무려 7개월 이상)

이 강의를 통하여 저 자신의 지적 관심이 여러 다른 영역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한 학문, 한 학문, 한 체계, 한 체계씩 형성해 왔는가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서구 문화에 있어서의 학문적 지적 진화 역사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 1982년에 한국에서의 인지심리학 중심의 첫 연수회 개최와 정보처리 패러다임의 인지주
의 전파.**

- 유학에서 귀국한 후에, 젊은 심리학자들을 (김정오, 이수원, 이만영, 최상진 교수 등) 연
결하여, 많은 사람들의 비관적인 예상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심리학회와 첫 연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제1회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연수회]

일자: 1982년 2월 08일 -11일

장소: 서울신문사 별관 강당

[프로그램] 매일 10:00- 17:30

8일(월): 지각의 신경기제 (김기석: 고려대); 정보처리 이론 및 인지과정 (이정모: 고려대)
인지사회심리학 (최상진: 중앙대)

9일(화): 기억의 생리적 바탕 (장현갑: 영남대) 색채지각 (이만영: 효성여대)
대인지각 (정양은: 서울대)

10일(수): 청각 언어과정 (이만영, 김정오, 이정모); 형태지각(김정오; 서울대)
귀인과정 (차재호: 서울대)

11일(목): 기억과정 (김경린: 경북대); 주의과정 (김성태: 고려대);
대인지각 (이수원: 한양대) ; + 회식

////////////////////////////////////

한국심리학회의 연구열이 높은 중진 교수들과, 젊은 교수들이 연수회 연사로 나흘 동안 진
행된 이 연수회에는 여러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강연을 들었고, 참여자들의 지적 열
기와 호응도가 아주 뜨거워서, 그 이후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연수회 프로그램을 학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이 연수회를 통하여 정보처리 패러다임의 [인지주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리잡았다고
보겠습니다.

3. 1984년에 미국 Colorado (Boulder) 대학 인지과학연구소에서의 인지과학의 제도화 상황 만남

- 1984년에 미국 Colorado at Boulder 대학에서 Walter Kintsch 교수가 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는 [인지과학연구소(Institute of Cognitive Science)]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연구소와 관련 학과들에서 [인지과학]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았습니다.
- 1980년대 중반의 콜로라도 대학의 인지과학연구소에서의 [인지과학] 연구 경험은 인지과학의 핵심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을 탐구하는 학문의 길을 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4. 1985년 한국에서 대우재단에 '인지과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제안 작성

-1985년 가을 서울대 심리학과 조명한 교수님의 부탁으로, 그 당시의 대표적(유일한?) 학술연구지원 재단이었던 [대우재단]에, [인지과학 공동연구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시는 한글 문서 작성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확산되기 이전 시기였기에) 편지지에 이 정보가 만년필로 쓴 제안서였다. 이 제안서는 대우재단 측이 보관하지 않았고 심의하지도 않았기에, 이듬해인 1986년에 이정보가 제안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5. 1986년 한국 최초의 인지과학 공동연구 모임 시작

* 먼저 다음 두 링크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 대우재단 [인지과학] 공동연구 모임 및 [한국인지과학회] 형성 경과 보고대우재단 [인지과학] 공동연구 모임 및 [한국인지과학회] 형성 경과 보고

<http://cogpsy.skku.ac.kr/cwb-data/data/newarticle/KOREANCOGSCI-1987.pdf>

학회소개: 한국인지과학회: - 창립 10주년의 회고와 과제

- 이정보(성균관대/ 인지심리학)

http://cogpsy.skku.ac.kr/psychology_ellipsoid/%ED%95%99%ED%9A%8C%EC%86%8C%EA%B0%9C%20%ED%95%9C%EA%B5%AD%EC%9D%B8%EC%A7%80%EA%B3%BC%ED%95%99%ED%9A%8C.htm

대우재단 지원 인지과학 공동연구 모임의 초기 구성원은 심리학 4명과 철학자 3명, 언어학자 3명, 전산학자 3명, 사회학자 1명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연구 모임은 격주로 열려 각 연구자들의 발표를 듣고 학문간의 개념적 의사소통과 이론적 지평의 확산과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이 모임은 1987년 6월 13일의 심포지엄을 끝으로 막을 내렸으며, 같은 날 창립된 한국인지과학회(초대 회장: 소홍렬 교수(이대, 철학))의 모체가 되었고, 그간의 연구결과가 대우학술총서의 하나로 출간되었습니다(1989).

실제 발표일자. 발표자.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86년.

- 9.2. 소흥렬(이대, 철학) ‘인지와 인과’
- 9.16. 조명한(서울대, 심리학) ‘마음의 단원성’
- 10.07. 이정모(성균관대, 심리학) ‘덩이글 이해의 심리적 과정’
- 10.21. 유석인(서울대, 전산학) ‘일반적 문제풀이 기법에 대한 고찰’
- 11.04. 최기선(KAIST, 전산학) ‘자연언어처리’
- 11.18. 이기용(고대, 언어학) ‘상황의미론’
- 12.03. 이익환(연대, 언어학) ‘언어와 논리’
- 12.16. 정대현(이대, 철학) ‘해석된 상사형으로서의 심성 영상’

1987년.

- 01.06. 이병혁(서울시립대, 사회학) ‘사회적 인지이론으로서의 민생방법론 (Ethnomethodology)’
- 01.20. 김영정(외대, 철학)
‘형이상학적 기능주의 고찰: 기능주의 분류와 켈리아 문제를 중심으로’
- 02.03. 정찬섭(연대, 심리학) ‘시지각 정보처리 계산모형’
- 02.24. 이일병(연대, 전산학) ‘컴퓨터 비전에서의 초기 처리 과정: 영점 교차와 색화상 구역 성장법을 통한 화상 분할 구현에 관한 고찰’
- 03.03. 김정오(서울대, 심리학) ‘역(threshold)에서의 의미정보처리, 주의 및 지각’
- 03.17. 김진형(KAIST, 전산학) ‘Uncertainty management in expert system’
- 초빙 발표 -
- *미발표 이정민(서울대, 언어학) ‘문법과 표상’의 주제로 발표예정이었으나, 미국 UCLA대학의 한국어 강의 설치 관계로 귀국할 수 없게 되어 발표를 취소함 -

////////////////////////////////////

** 위의 발표자-발표제목 관련 자료는 아래 첫 링크의 자료 III 에
“III. 대우재단 지원 인지과학 공동연구 모임 연구 발표”로 다시 제시됨

대우재단 [인지과학] 공동연구 모임 및 [한국인지과학회] 형성 경과 보고
<http://cogpsy.skku.ac.kr/cwb-data/data/newarticle/KOREANCOGSCI-1987.pdf>

이하는 한국인지과학회의 학회지 [인지과학] 책 편집모임 회의에
(1986. 6.30.) 학회 총무이사 이정모가 제출한 자료임.

I. [대우재단 지원 [인지과학] 공동 연구 모임 형성]

1985.12. 대우재단 측에 조명한 교수(서울대, 심리학)가 접촉한 결과, 재단이 지원 용의를 시사하여 제안서를 이정모가 작성하여 (* 아래하 한글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이전 시기이기에 편지지에 볼펜으로 작성; 제안서 제목: **[인지과학 연구발표 및 syposium] proposal**) [조명한, 이정모} 명의로 1차로 제출함 (1985. 9).

그러나 대우재단의 소극적 반응으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음

1986.2. 대우재단에 조명한 교수가 재 접촉한 결과, 다시 지원 가능성 시사를 받음

1986.3. 26. 조명한 교수(서울대, 심리학). 이정모 교수(성균관대, 심리학)는 대우재단 측 (재단 이사장 이용희, 노재봉 위원(서울대), 김대식 재단전문위원)과 회합을 갖고, 대우재단 측에 인지과학 모임을 통한 연구수행 인력이 있음을 설득함.

-> 회합결과로 대우재단의 지원 의사를 확인함

회합시 제시된 자료;

1. 공동연구 프로포잘 제시

2. 자료 제시; 인적자원 <- 한국심리학회, 인공지능학회, 한국언어학회, 서울대어학연구소
인지과학 세미나(서울대 이정민 교수 기획 개최) 발표자료 등을 제시함

1986. 4월 ~ 5월: [인지과학] 공동 연구의 틀의 형성과, 연구 참가(후보)자를 찾기 위한
연락 시작: (5월 6일 이후)

1986. 5.13. 공동연구안 제2차 proposal을 대우재단에 제출
- 연구자 14인 참여; 내용: 위의 링크 III자료에 소개됨

1986. 5.17. 대우재단에서 공동연구 지원 결정 통보

1986. 5.22. 대우재단 지원 결정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통보

1986. 5.28. 오후 6시 : 인지과학 공동연구 준비 모임

[참석자] :

- 공동연구자 측; 소흥렬 (연대, 철학), 정대현 (연대, 철학), 이정민 (서울대, 언어학),
이익환(연대, 언어학), 조명한 (서울대, 심리학), 이정모 (성균관대, 심리학),
정찬섭 (연대, 심리학), 이일병 (연대, 전산학)
- 대우재단 측: 이용희 이사장, 노재봉 위원

* 이 준비 모임에서 토의된 사항:

- 1. 인지과학 연구를 [주제별 논문 연구]의 형태로 규정하려는 대우재단 측을 설득하여
[공동 학술 연구]의 형태로 결정함
- 2. 별첨과 같은 연구 발표자 및 연구주제를 확정함
- 3. 다음 모임의 일자와 준비사항을 결정함

1986. 6. 18. 오후 6시: 인지과학 공동연구 첫 공식 모임 (대우재단, 소회의실)
[토의사항]

- 1. 각 연구자가 연구 발표내용의 요약을 제시하고 설명함
 - 2. 각 분야별 주요 Reading Lists를 제출하여 나누어 가짐
(작성자: 언어학 - 이기용 (고대); 철학 - 소홍렬(이대); 전산학 - 최기선(KAIST);
심리학 - 조명한(서울대); 사회학 - 이병혁(시립대))
 - 3. 연구 진행 일정 확정 : 별첨 (격주 모임, 40-60분 발표; 최종원고 15매 내외
 - 4. 예산 집행, 기타 연구 모임 진행 관계 사항 토의
- * 김재희 교수가 개인사정으로 탈퇴함

1986. 6. 18. : [인지과학 공동 학술 연구] 최종 연구 계획서를 대우재단에 제출

1988. 9.2. 오후 6시 ; [인지과학 공동 학술 연구] 첫 연구 발표회 개최

- 이하 연구발표회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기타:

김정오 교수(서울대, 심리학)를 공동연구자로 영입 결정

이정민 교수(서울대, 언어학)가 UCLA 체재 중인데, 공동연구자로 계속 남아있도록 하기로 결정

1986, 9. 16 ~ 1987. 3.17. 2회 ~ 14 회 연구 발표회 개최

1987. 1. 20. 인지과학 심포지움의 일정, 양식 등 결정

1987. 6.13. 13시:30; [인지과학 심포지움] 개최 (대우재단 회의실)

- 심포지움 내용 별첨

1987. 6.30 .18:00시 [인지과학 공동연구] 중간 결산 및 기획 모임

II. 한국인지과학회 형성 경과

- 1986. 6월 이후 대우재단 지원 [인지과학 공동 학술 연구] 발표회를 계속 가지며, 이 연구 모임이 끝나면 [인지과학회]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수차 거론됨

1987. 6. 11. 오후3시:

- 대우재단 이용희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지과학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고, 대우재단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임에 대한 약속을 받음.
- 참석자: 인지과학 연구자 측: 조명한, 소홍렬, 이정모
대우재단 측: 이용희 이사장, 김대식 전문위원

1987년. 6월.13일 (토). 오후 1:30-5:30

인지과학 심포지움 (: 마음, 언어, 계산) 개최

장소: 대우재단 빌딩 16층 강연실

주최: 인지과학 연구모임

후언: 대우재단

1. 인지과학 심포지움 석상에서 인지과학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음을
조명한 교수(서울대)가 공개 공지함.
2. 당일에 인지과학회 입회원서를 배부하고 입회 신청을 받음
3. 심포지움 종료 후 연구발표 및 심포지움 참여자가 회동한 석상에서
한국인지과학회 창립의 문제가 거론됨.
4. 학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그간 인지과학 공동연구 모임의 대표이었던
조명한 교수가 회장 지명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고,
공동연구자들과 심포지움 참석자들의 중지에 따라,
소홍렬 교수(연장자이기도 하였음)가 학회 회장으로 선출됨.
5. 회장 소홍렬 교수는 학회에, 회장, 총무, 편집위원의 집행위원을 두는 것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총무에 이정모 교수, 편집위원에 이익환 교수를 지명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음
6. 기타 학회 운영과 관련된 일반사항 토의

1987. 6.30. 오후6시 : 인지과학회 운영 (준비) 모임

III. 대우재단 지원 인지과학 공동연구 모임 연구 발표

1986.

- 9.2. 소홍렬(이대, 철학) '인지와 인과'
- 9.16. 조명한(서울대, 심리학) '마음의 단원성'
- 10.07. 이정모(성균관대, 심리학) '덩이글 이해의 심리적 과정'
- 10.21. 유석인(서울대, 전산학) '일반적 문제풀이 기법에 대한 고찰'
- 11.04. 최기선(KAIST, 전산학) '자연언어처리'
- 11.18. 이기용(고대, 언어학) '상황의미론'
- 12.03. 이익환(연대, 언어학) '언어와 논리'
- 12.16. 정대현(이대, 철학) '해석된 상사형으로서의 심성 영상'

1987.

- 01.06. 이병혁(서울시립대, 사회학) '사회적 인지이론으로서의 민생방법론
(Ethnomethodology)'
- 01.20. 김영정(외대, 철학)
'형이상학적 기능주의 고찰: 기능주의 분류와 웰리아 문제를 중심으로'
- 02.03. 정찬섭(연대, 심리학) '시지각 정보처리 계산모형'
- 02.24. 이일병(연대, 전산학) '컴퓨터 비전에서의 초기 처리 과정: 영점 교차와 색화상
구역 성장법을 통한 화상 분할 구현에 관한 고찰'

03.03. 김정오(서울대, 심리학) ‘역(threshold)에서의 의미정보처리, 주의 및 지각’

03.17. 김진형(KAIST, 전산학) ‘Uncertainty management in expert system’

- 초빙 발표 -

*미발표 이정민(서울대, 언어학) ‘문법과 표상’

- UCLA 체제 중으로 발표 연기 -

** 일년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 중 변동 사항; ->:

서울대 이정민 교수는 UCLA 체제가 연장되면서 이 공동연구 모임의 발표연구자 명단에서 제외, 서울대 전산학과 유석인 교수는 모임 후기에 탈퇴하고, 대신 KAIST의 김진형 교수 영입,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모임 후기에 서울대 김전 교수와 서유현 교수가 발표를 안 하는 연구자로 합류함.

=====

1987년부터 그 이후;

- 6. 1987년 한국인지과학회 출발 및 격월간 뉴스레터 간행
- 7. 1996년 천리안 인지과학 동호회 활동 시작
- 8. 1997년 인지과학의 다른 이름인 소프트과학 프로젝트 시작(과학기술처)

- 1997년 제 1회 국제인지과학회 (ICCS) 개최
- 4개 대학 인지과학 대학원 협동과정 개설
- 뇌과학촉진법 입법 참가 및 KAST 뇌과학연구소 창설에 인지과학회 회원들이 참여
- 학술진흥재단에서 인지과학이 정신의학의 한 하위 분야로 분류되던 것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복합과학 분야로 설정됨 - 과학재단도
- Daum 넷에서의 인지과학학생회 출발

1996년 제 1회 인지과학 학술강좌 기획, 운영 이야기

- 추후 보완 예정 -

<프로그램>

제 1회 인지과학 학술강좌

때: 1996년 2월 5(월)- 7(수) 매일 10:00-17:30

곳: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주최: 한국인지과학회

[일정]

2월 5일 (월);

오전: 인식론과 인지과학 (소흥렬: 철학; 이화여대)
오후: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민찬홍: 철학; 한남대)
문제해결과 인지과학 (김진우: 경영학; 연세대)

2월 6일 (화);

오전: 신경계의 가소성 (임중우: 신경과학; 연세대)
오후: 언어학의 기초 (안휘돈: 언어학; 건국대) (전종호: 언어학; 영남대)
언어학 이론의 적용 (이정민: 언어학; 서울대) (김영주: 언어학; 홍익대)

2월 7일 (수);

오전: 문자 인식의 기본 문제들 (이성환: 전산학; 고려대)
오후: 자연언어 이해에서의 지식표상 (정민화: 전산학; 서강대)
인간 기억의 구조와 과정 (이재호: 심리학; 고려대)

종합토론: 인지과학의 미래의 방향 (사회: 이정모: 심리학; 성균관대)

참가비: 10,000원 (교재 배부)

문의처: 한국인지과학회 (당시 서울대 인지과학 과정 전화번호)

천리안, 하이텔: 당시 이정모의 메일 주소

후원: 서울대 인지과학과정 (당시 전화번호); 성균관대 인지과학과정(당시전화번호),
연세대 인지과학과정(당시 전화 번호)

1

[1997년의 “천리안 인지과학 동호회”에 이정모가 올린 글]

천리안 넷에서 인지과학 동호회가 창립되어 운영되던 때가 햇수로 벌써 10년이 되었군요
그 당시에 관리자 역할을 하느라 많은 고생을 한, 당시 성균관대 인지과학 석사과정의
박정민과 그 당시에 인지과학 동호회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번호:10/13 송신자:ZSINJI 송신일시:97/12/31 23:50 형태:TEXT 크기:55줄
제 목 : 인지과학 동호회 운영자 새해 인사

< 해를 보내고 맞으며 >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여름에(1996) 우리 '인지과학 동호회'가 탄생하여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자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반년동안 우리의 인지과학 동호회는,
마음, 두뇌, 인식, 의식, 인공지능, 인공두뇌, 컴퓨터와 인간, 진화,
등등의 문제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 지녔던 진지한 물음, 호기심들을

동호회 회원 간에 함께 나누고, 동료적 연대감을 형성하며

자신의 생각의 좁음과 지적 세계의 넓고 깊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신선한 새 호기심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를, 또
마당을 마련해주는 자그마한 우리의 이야기 터이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호회 안에서, 밖에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호회가 천리안의 신생 동호회 중에서 [우수동호회]의 하나가 되고,
회원이 97년 12월 31일 현재로 346명으로 되었습니다.

양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균관대 인지 동아리 중심의 출발의 협소함을 넘어서서
민찬홍, 정경환, 성시중 님들의 적극적 활동과
김도형, 이남석, 최종무, 김정환 님 등을 비롯한 몇 분들의 희생적
시간 내어줌과 열심에 힘입어 동호회의 내용이 보다 알차졌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의 분들, 다양한 지적 관심을 지닌 분들이
참여하여 여러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한국인지과학회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과학 연구 프로젝트가
과기처 프로젝트로 자리를 잡았고,
국제인지과학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감성과학회가 창립되었고,
KAIST에 뇌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인지과학연구소가 건국대, 서울대, 연세대의 3곳으로 늘었고,
기업체와 인지과학과의 산학협동 연구들도 여럿이 새로 추진되었습니다.

오는 해인 1998년 2월에는 뇌과학(인지과학 및 신경과학), 뇌의학, 뇌공학을 포괄하는 뇌학
회가 창립됩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인지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증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여럿 나타납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나이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의 인지과학에 대한 신선한 호기심이
계속 보인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인지과학에 대한 인식과 기대는 더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한국 내에서의 인지과학의 퍼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각자의 [인지과학]에 대한 [애정]과 [지식]이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는 해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호회 운영진도 지난해의 게으름과 빈약함을 반성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 위에서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배전의 관심과 이야기 나눔과 제안을 바랍니다.
새해에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의 성취와
건강하심을 빕니다.

해를 보내고 맞으며
천리안 인지과학동호회 운영자 이정모 드림

인지과학회의 초창기: 개인적 회고 -----

- 다음은, 1997년 제1회 국제인지과학회 진행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부정적 이야기를
제기한 사람들(인지과학 학생들)의 불평에 대하여 도움을 주려는 뜻에서
옛날의 어려움을 알리고, 봉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시에 수고를 하였던 서울대 인지과학 협동과정 학생들 및 타 대학 학생들에게 전한 글입니다

.....
11년 전에(1987) 한국 인지과학회를 제대로 출발시키기 위해
한국인지과학 학회 가입원서 용지들을 들고,
국내의 각종 컴퓨터과학 , 언어학, 철학, 심리학
관련 학술회의나 심포지움, 워크샵 등을 쫓아다니며
그 학회 모임의 접수대 근처에서 [한국인지과학회]의 입회원서들을 배포하고,
그 학회 모임 운영자들에게 부탁하고
관심없는 주제들도 끝까지 듣고 앉아 있어야 했던
그리고 한, 두 사람의 가입 신청을 받으면 그것으로도 좋아했던 그 시절,

학회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임원 교수들이 호주머니 돈을
내어서 이렇게 저렇게 충당했던 그 시절,

아래하 한글이 알려지지 않아 다른 워드로 286 컴퓨터를 쓰며,
날장 프린트가 힘들었던 도트 프린터로 프린트 아웃을 뽑아 용지의 좌우
구멍 뚫린 부분들을 손으로 뜯어내어 공문을 만들었던 그 시절,

그 공문들을 빨리 보내기 위해 몇 십 개의 편지봉투를 들고
광화문 국제 우체국이나 명동의 중앙우체국에 매번 찾아가서
봉투 하나 하나에 우표를 풀칠하여 붙여서 발송해야 했던 그 시절,

격월로 인지과학뉴스레터를 작성, 인쇄, 배포하기 위해 을지로 3가 인쇄소 골목을 드나들며
기자, 편집인, 교열인, 사환의 만능인이 되었던 그 시절,

거의 매월 열리는 인지과학회 월례회 개최를 위해
이 대학 저 대학에 가서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20명 정도까지 청중이 채워지기를
나타낼지 아닐지를 모르는 데이트 상대 기다리듯 목을 빼고 기다리던 그 시절,

모임이 끝날 때마다 참석했던 10여명의 학자들이
가족처럼, 형제처럼 밤늦게 식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러면서도 [인지과학회]의 미래에 대한 작지 않은 꿈과 기대를 키웠던 그 시절.....

그 시절들을 생각하면 10년 사이에 이러한 규모의
국제회의를 (1997년의 제1회 ICCS) 개최하게 된 것만도 감회가 깊을 뿐입니다.